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

윤용택*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석주명과 제주도
- III.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
- IV. 석주명 '제주도총서'의 의의
- V. 맺는 말

국문요약

석주명은 '제주적인 것'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다. 그는 60여 년 전 제주도의 특이한 자연과 문화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바삐 한국의 식자들이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연과학도였던 그가 제주도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 직접 뛰어들어 제주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제주도총서'를 결집(結集)해내었다.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그가 남긴 자료들은 제주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이다. 그것들은 제주4·3 이전의 제주도 자연과 인문사회의 원형(原形)에 가까운 자료들로서, 그로 인해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주도가 이뤄졌다. 당시 일본 어용학자들의 제주도 연구 목적은 자원을 수탈하고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를 한국의 자태(姿態)를 밝히는 국학(國學) 연구의 연장으로 보았다. 셋째,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인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소장

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즉 나비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 분류, 분석 방법들을 방언연구, 인구조사, 문헌분류 등에서도 응용하였다. 그리 본다면 석주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문융합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넷째, 석주명은 제주학 연구를 통해 통합학자가 되었다. 그는 제주도 연구 이전에는 한낱 곤충학자에 불과했지만, 제주도 연구를 거치면서 자연, 인문, 사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학자로 성장했다.

석주명이 세상을 떠난 지도 60년이 지났다. 많이 늦었지만 석주명 학문 전체에서 그의 제주학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학문 전반에서 연구방법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제주학 분야에서도 양과 질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에 걸맞게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석주명, 제주학, 제주도총서, 세방주의자, 통합학자, 학문융합

I. 들어가는 말

석주명은 1908년 10월 17일 태어나¹⁾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6일

1) 석주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에서 그의 생년월일이 1908년 11월 13일(음력 9월 23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1908년 음력 9월 23일은 양력으로 10월 17일이다. 이처럼 그의 출생일(양력)에 오류가 생기게 된 것은 누이동생 석주선이 1968년 11월 석주명의 유고집 『제주도수필』(보진재, 1968)을 발간하면서 발문에 “오빠! 오는 음(陰) 9월 23일(1968년 11월 13일)이 바로 오빠의 회갑이어요. … 오늘 회갑을 맞이하여 삼가 영전에 손수 쓰신 책을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라고 쓴 것을 염두에 두고, 그의 생년월일을 1908년 11월 13일로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석주명의 회갑일인 1968년 음력 9월 23일은 양력 11월 13일이지만, 그가 태어난 1908년 음력 9월 23일은 양력으로 10월 17일이다(한국천문연구원, 2004: 36-37쪽, 156-157쪽 참조). 따라서 석주명의 생년월일이 1908년 11월 13일이라는 것은 오류이므로 1908년 10월 17일로 수정되어야 한다.

에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쳤다. 그는 나비박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42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양과 질에서 빼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석주명 평전을 쓴 이병철은 그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산을 오른 산악인, 한국 최초로 방언사전을 펴낸 거례사랑 국학자(國學者), 음악을 사랑하고 제주민요 ‘오돌또기’를 최초로 채보한 아마추어 음악가, 국제어 에스페란토 보급에 힘쓴 세계평화주의자, 나비를 쫓아 한반도 곳곳을 누빈 곤충학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가장 잘 아껴 쓴 사람 등으로 평하고 있다(이병철, 1989: 뒷표지).

그는 곤충학계에서는 나비박사로, 에스페란토 관계자들은 에스페란토 운동가로, 그리고 제주학계에서는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린다. ‘제주도총서’를 비롯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그 양과 질에서 뛰어나 그를 제주도 박사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²⁾ 이방인이었던 그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주도의 자연, 생태,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산업 등에 있어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비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석주명의 업적에는 공과(功過)가 공존한다. 강영봉은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관심 또는 호기심이 전공자에게 자극을 주고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비전공자가

2) 석주명은 1949년 펴낸 『제주도관계문헌집』에서, 제주도(濟州島)를 월등하게 많이 다룬 학자로 ‘식물학’의 中井猛之進, ‘제주도학’의 石宙明, ‘사회학’의 善生永助, ‘동식물학’의 森爲三, ‘방언학’의 小倉進平 등 다섯 사람을 들면서, 자신을 제주도학 연구자로 명시하고 있다(석주명, 1949g: 244쪽).

* 석주명은 제주도에 관한 연구를 ‘제주도학(濟州島學)’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지금은 제주도 학계에서 ‘제주학’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석주명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주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전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공자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실로 믿거나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어서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자의 거르개를 거쳐 정제된 자료를 내놓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결국은 이 둘이 서로 보완적일 때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강영봉, 2008: 27쪽)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제주학의 다른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승하는 것은 후학들의 몫이다.

석주명은 평양에서 태어나 개성에서 생물교사로 있으면서 나비연구로 이름을 떨쳤고, 말년에는 제주도와 서울에서 연구를 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존경할 수 있고, 자연과학도와 인문사회학도가 동시에 흠모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학자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제주도와 관련된 그의 논저와 자료들은 제주학계뿐만 아니라 한국학계의 귀중한 자산이다.

석주명의 삶과 학문은 그의 평전³⁾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나비연구에 대해서는 1997년에 처음으로 학위논문(문만용, 1997)에서 다뤄졌고, 그의 제주학 연구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부터 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하였다.⁴⁾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성과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주도총서’를 비롯하여 제주도와 관련해서 썼던 글들을 바

3) 여기서는 이병철의 『석주명』(동천사, 1985),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아카데미서적, 1989), 『석주명 평전』(그물코, 2002) 등의 제목으로 발간된 책을 의미한다.

4) 석주명이 제주학의 선구자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0월 7일 제주전통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석주명 50주기 세미나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고 석주명 선생 재조명>에서부터이다.

탕으로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 전반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곤충학, 에스페란토, 제주학 등 그의 연구 전체에서 제주학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함으로써 그의 연구업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석주명과 제주도와의 관계를, III장에서는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에 대해서, IV에서는 ‘제주도총서’의 의의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II. 석주명과 제주도

석주명은 제주도에 세 차례 방문하거나 체류했다. 첫 번째는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주도의 나비를 채집하기 위해 1개월 남짓 체류한 것이고,⁵⁾ 두 번째는 1943년 4월 24일부터⁶⁾ 경성제대 부속 생약

5)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주도에 머물렀던 석주명 자신의 기록으로는 ‘(1937), 『濟州島産蝶類採集記』, *Zephyrus*, vol. 7, 150-174쪽 및 ‘(1937), 『濟州島の思ひ出』, 『지리학연구』 제14권 5호, 27-29쪽’ 등이 있다. 한편 그의 조수였던 우종인의 『南部朝鮮採集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종인(1938), 『남부조선채집기』, 『곤충계』 제6권 55호, 도쿄, 37-44쪽 참조(이 글은 『석주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329-337쪽에 재수록 되어있다).

6) 경성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은 1943년 4월 24일 개장하였고, 석주명은 이 날 부임하였다(석주명, 1968: 145쪽). 한편, 오성찬의 석주명 실명소설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에서는 석주명이 조선산악회의 제1회 국토구명 한라산학술등반(1946. 2. 26 - 3. 17)에 참여하여 1946년 2월 27일에 제주도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오성찬, 2004: 186쪽 참조). 그러나 석주명은 1946년 6월에야 조선산악회(1945. 9. 15 창립)에 가입하였고, 1946년 6월 28일 열린 제1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제1회 국토구명학술조사(한라산학술등반)에는 참석치 못하고, 제2회 국토구명 오

연구소 제주도시험장(현 제주대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위치)에 부임하여 1945년 5월까지 2년 1개월간 근무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1948년 2월경에 제주도를 찾아 제주섬을 일주한 바 있다⁷⁾. 그가 해방 직전 2년 여 동안 제주도에 체류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시기는 제주 4.3 이전이어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서 제주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석주명으로는 학문적으로 최고 절정기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기였다. 그리고 제주도를 떠난 직후에는 개성에서, 해방 이후에는 서울에서 (제주도에서의 4.3 혼란기를 피해) 제주도 관련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전념할 수 있었다.

석주명은 유고집을 포함한 17권의 저서, 120여 편의 학술논문, 180여 편의 잡문(소논문과 기고문)을 남겼는데⁸⁾, 그 가운데 제주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6권의 ‘제주도총서’와 27편의 논문, 보고서, 기고문 등⁹⁾이 있다. 그는 한국의 나비와 제주도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 석주명은 진정한 한국의 자태를 찾으려면 제주도에서 그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대산·태백산맥 학술조사(1946. 7. 25-8. 12)부터 참여하여 제7회까지 총 여섯 차례 참여하였다(이병철, 2002: 201-218쪽 참조).

- 7) 이는 1948년 2월 6일자 『제주신보』에 실린 “조선(朝鮮)의 자태(姿態)”라는 기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에서- 라는 부제가 달렸으며, 글 가운데 “이도후(離島後) 4년만에 다시 와보니 해방과 38선 관계로 육지인들의 입도와 육지문화의 침윤(浸潤)으로 제주도의 특이성이 없어져감을 느낀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1949년 5월에 탈고한 『제주도수필』에서 “해방후 4년에 제주도를 일주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자료를 볼 때 석주명이 1948년 2월경에 제주도에 다녀갔음을 추론할 수 있다(석주명, 1968: 11쪽 참조).
- 8) 석주명은 1950년 6월에 탈고한 『제주도자료집』에 자신의 전체 연구업적 목록과 해설을 실고 있다(석주명, 1971: 215-240쪽 참조).
- 9) 다른 학회지나 잡지에 실렸던 대부분의 논문과 에세이는 『제주도자료집』(보진재, 1971) 및 『석주명 나비채집 이집년의 회고록』(신양사, 1992)에 재수록 되어 있다.

깨달았다. 그러나 흔히 쓰는 물과 공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의 특이한 자연과 문화가 귀한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바삐 한국의 식자들이 금싸라기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석주명, 1948a; 1971: 7-8쪽).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연과 학도였던 그가 인문사회학적 연구를 직접 수행하여 마침내 ‘제주도총서’를 남김으로써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석주명은 스스로 반(半)제주인임을 밝히면서,¹⁰⁾ 제주도를 사랑하였다. 그는 1936년 여름에 나비채집을 위해 제주도에 한 달 간 머물면서 특이한 자연과 문화에 매료되었고, 1943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에 근무하면서 제주도 관련 자료 수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1948년 2월경에 제주도를 다시 찾아 고유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감회를 신문에 기고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떠나고서도 해방 직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신문기사들을 거의 빠짐없이 모으고 분석하였다(석주명, 1949a; 1949b; 1949c; 1950b). 그가 남긴 대부분의 제주도 관련 자료들은 제주4.3 이전 것들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석주명은 나비 연구와 제주도 연구를 통해 지역적인 것이 민족적인 것이요, 국가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그는 지역어인 제주어를 수집 연구하여 그 진가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방언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그는 세계 보편언어로서의 국

10) “9월말에서 10월초에 걸쳐서 발간된 귀지(貴紙)를 지금 서울에서 읽고 두어줄 글일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지 창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그 간의 뚜렷한 자취를 돌아보고 반제주인(半濟州人)인 소생으로는 유쾌를 금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꾸준한 계속을 충심으로 비나이다. …”(석주명, 1948d; 1971: 197쪽 참조).

제어¹¹⁾는 강대국의 언어가 아니고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중립어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에스페란토에 일가를 이루어 그것을 세상에 보급 하기에 힘썼다. 그가 지역어인 제주어를 수집하고 연구한 것은 국제어인 에스페란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려 했던 것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그가 1947년에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 소사전』과 『제주도방언집』을 펴낸 것은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없다. 그는 세계주의자(globalist)인 동시에 지방주의자(localist)였고, 더 나아가 지방과 세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든 세방주의자(glocalist)¹²⁾였다. 그 점에서 석주명은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세방화(glocalization)¹³⁾ 시대를 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세상이 제주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석주명은 제주도의 가치를 깨닫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세상에 알렸지만, 후학들에게도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가 남긴 제주학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후학들의 몫이다.

논자는 일찍이 그가 채류했던 서귀포에 석주명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윤용택, 2003; 2007). 석주명기념관에 한국과 세계의 나비를 전시한 나비전시관, 제주어와 전국의 방언에 관한 자료들을 구비한 방언도서관, 제주학 관련 자료들을 모아 놓은 제주학자료실, 그리고 그가 남긴 글과 행장을 모아 놓은 석주명자료실 등이 들어선다면, 그의

11) 여기서 국제어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고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세계 보편언어를 의미한다.

12) 세방주의자(glocalist)는 세계주의자(globalist)와 지방주의자(localist)를 합성한 말이다.

13) 세방화(glocalization)는 세계화(globalization)과 지방화(localization)를 합성한 말이다.

위대한 업적을 기린다는 명분도 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하나를 더 추가하는 실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

석주명은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한 달여 동안 나비채집을 한 바 있다. 당시 그의 기록으로는 『濟州島産蝶類採集記(一新亞種の記載を含む)』(*Zephyrus*, vol. 7, 1937) 및 『濟州島の思ひ出』(『地理學研究』 제14권 5호, 1937) 등이 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미 그의 관심은 단순히 나비채집에 머물지 않고 제주도의 도시와 농촌, 부속섬인 가파도(석주명, 1937a: 162쪽; 1937b: 28쪽)와 섯섬(석주명, 1937a: 167쪽), 제주도의 자연(오백장군, 한라정원, 산중하천)과 풍속 등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제주체험을 통해 석주명은 제주도가 자연과 인문 분야에서 보물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여 1943년 4월 24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소속의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으로 자청하여 전근을 오게 된다. 자연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에서 사계절을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벽지 근무를 자원했던 것이다. 그는 제주도에 장기간 체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전문분야인 제주도 나비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넓혀 제주도의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석주명, 1947a: 1992: 55쪽 참조).

석주명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제주도에 머물면서 상당량

의 제주학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는 제주도에 부임하자마자 육지와 너무나 판이한 여러 가지 현상에 흥미를 느끼고 나비와 더불어 ‘제주도’를 그의 연구 테마로 삼았다(석주명, 1968: 서(序); 1992a: 179쪽 참조). 그는 곤충채집부터 방언, 인구, 제주도 관련 문헌과 자료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읽은 것 중에 제주도에 관한 것이 나오면 즉시 적당한 제목을 붙여 카드에 기록해 쌓아두었다.

석주명은 1945년 5월 제주도를 떠난 다음 개성과 서울에서 자료들을 분석하여 여섯 권의 ‘제주도총서’로 정리해냈다. 제주도총서 발간 계획은 그의 생전인 1950년 6월에 탈고한 『제주도자료집』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저자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개년여 제주도에 살면서 수집한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8·15해방 직후 총서로 하여 6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신문사출판국의 호의로, 2개월에 1권씩 모두 1년 동안에 펴(畢)하려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그만큼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제주도총서의 발간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집 제주도방언집(1947), 제2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1949), 제3집 제주도문헌집(1949), 제4집 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물)(교료[校了]), 제5집 제주도곤충상(채자료[採字了]), 제6집 제주도자료집(탈고[脫稿])으로, 이 제6집에는 제1-5집에 들지 않은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다.¹⁴⁾ 이 자료란 것이 저자가 주로 잡지에 기고한 기간·미간의 줄편들로서 그 중에는 기고했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도 약간 있다. 이 제6집이 제주도총서의 종권(終卷)이므로 친지의 권고도 있고, 또 연구하는 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말에 줄저목목을

14) 여기서 이미 1950년 6월에 그의 유고집 『제주도수필』은 교정이 완료되었고, 『제주도 곤충상』은 활자를 골라내는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편집을 끝냈으며, 『제주도자료집』은 집필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부록으로 넣기로 하였다.

-1950年 6月 서울에서-

하지만 ‘제주도총서’는 그의 생전에 아래 제1-3집만 세상에 나오게 된다.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총서 제1집, 서울신문사, 1947.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제주도 인구론-』, 제주도총서 제2집, 서울신문사, 1949.

『제주도관계문헌집』, 제주도총서 제3집, 서울신문사, 1949.

그리고 제4-6집은 석주명이 한국전쟁으로 줄지(1950. 10. 6)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유고로 남았다가 나중에 동생인 석주선의 노력으로 발간되었다. 그의 유고집들에 대해서는 그의 환갑을 맞아 1968년 11월에 출간된 제주도총서 제4집 『제주도수필』 말미에 있는 석주선의 발문에 잘 나와 있다.

… 남아있는 유고의 내용은 제주도총서 6권중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생명조사서, 제주도문헌집은 이미 6.25 전에 서울신문사에서 출간되고, 아직 미간인 제주도자료집,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수필, 한국산접류의 연구, 한국산접류의 연구사, 한국산접류분포도, 외국산접류분포도, 세계박물학연표 등입니다. …

-1968년 11월 석주선

석주명의 유고집들은 석주선의 노력으로 아래의 순서로 1968년부터야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수필 -제주의 자연과 인문-』, 제주도총서 제4집, 보진재, 1968.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총서 제5집, 보진재, 1970.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 제6집, 보진재, 1971.

『한국산 접류의 연구』, 보진재, 1972.

『한국산접류분포도』, 보진재, 1973.

『한국분위 세계박물학연표』, 신양사, 1992.

이 가운데 석주명의 최고 역작 가운데 하나인 『한국산접류분포도』는 출판을 맡은 이의 실수로 출판사 창고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1984년 1월에야 비로소 서점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이병철, 2002: 44쪽). 세계적인 걸작이 원고가 완성되고 3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유고집을 포함하여 석주명의 저서와 글모음집으로는 (중등교과서와 사전을 제외하고) 13권의 단행본이 있다.¹⁵⁾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곤충에서 시작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언어, 역사, 문화, 의학, 사회문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간다. 그의 제주학 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제주도총서’와 그의 글모음집인 『석주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속에 결집되어 있다.

문만용은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에서 석주명의 나비연구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첫째 시기는 1929년 가고시마농을 졸업하고 박물교사로 근무하면서 나비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1933년까지로, 이 시기 그의 연구는 단순한 목록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개체변이연구라는 이후의 중심적 연구테마로 이행하는

15) 위의 단행본들 이외에 석주명 이름으로 출간된 단행본으로는 다음이 있다.

1.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Korea, 1940.
2. 『조선나비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1947.
3. 유고 모음집 『석주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1992.
4. 유고 모음집 『나비박사 석주명의 과학나라』, 현암사, 1992.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시기는 1934년에 발표한 “한국산 접류의 연구(제1보)”를 시작으로 개체변이를 밝히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39년 그간의 연구를 일단락 짓는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를 완성한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 정립된 그의 분류방법론은 그 이후로도 굳건히 유지되었다. 셋째 시기는 그 이후부터 석주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로, 변이연구의 대상을 넓혀 가는 한편 조선산 나비분포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가는 시기였다. … 다만 이 시기에 그는 분류학 연구 이외에도 인문학적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생물학연구에 국학의 가치를 부여하려 했으며, 해방 직후 이러한 시도를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하였다(문만용, 1997: 15-16쪽).

석주명의 학문 전체를 놓고 볼 때,¹⁶⁾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르다. 석주명이 1943년 4월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 에스페란토 관련 글들을 빼고는 그의 연구 대부분은 나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머물게 되면서 그의 학문적 연구는 인문사회분야까지 확장된다. 즉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한낱 나비 연구가이자 곤충학자에 불과했던 석주명은 제주학 연구를 거치면서 그는 명실상부한 통합학자로서 성장하게 되었다.¹⁷⁾ 그는 “국학과 생물학”에서 제주도 곤충 조사와 제주도 방언 조사, 더 크게 말하면 곤충학과 제주학 연구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석주명, 1992a: 79-82쪽 참조). 석주명은 제주학

16) 그의 연구업적은 『제주도자료집』 부록에 잘 정리되어 있다(석주명, 1971: 215-240쪽).

17) 국학자인 정인보(鄭寅普)가 “내가 석교수(石教授)를 만난 지도 어느덧 십오륙 년이나 된다. 그 때는 아는 이가 적었고 지금 와서는 모르는 이가 없다. … 나는 박물학에 대하여 비평할 밑천이 없다. 국학(國學)의 영역 안에서 서로 비최는 바 깊은지 오램으로 두어줄 글월을 써서 권두에 붙인다. 1949년 3월 6일 정인보”(석주명, 1992: iv 참조)로 한 것으로 보아 석주명은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국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인문사회학 전반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 연구 시기 이후라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학자이자 학문융합의 선구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IV. 석주명 ‘제주도총서’의 의의

석주명은 제주도시험장 근무를 마치고 1945년 5월 개성의 본소로 귀임하였고, 개성에 도착한 직후 제주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표1 참조). 그리고 1945년 6월경 수원 ‘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1946년 9월 서울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장을 맡으면서 제주도의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제주도총서’로 정리해낼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줄지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제주도총서’는 완간되지 못하고, 제4-6집은 유고로 남았다가 여동생 석주선의 노력으로 1968년-1973년에 와서야 완간되었다.

석주명의 ‘제주도총서’가 갖는 자료적 의미와 출판학적 의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된 바 있고(홍순만, 2000; 최낙진, 2007; 2008), 특히 제주어(제주방언)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상당 정도로 규명해 놓고 있다(강영봉, 2002; 2008). 이 장에서는 그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석주명의 ‘제주도총서’가 갖는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제주도방언집(濟州島方言集)』의 의의

석주명은 ‘제주도총서’ 제1집으로 『제주도방언집』을 구상하였고, 마침내 1947년 12월 30일 세상에 내놓았다. 그동안 곤충학자로만 알려졌던 그가 제주학의 선구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책의 덕분이다.

그가 제주어를 조사하고 수집하게 된 동기는 “국학과 생물학”의 ‘방언과 곤충’에 잘 나타나 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 언어가 9백이상이나 있다고 한다. 그 각 민족어는 다시 지방 지방에 따라 여러 지방언어 즉 방언으로 나누이고 또 한 지방의 방언이란 것도 자세히 조사해보면 개인차에 의한 개인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여 언어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제거하여 귀납하면 방언이 성립하는 것이고, 제 방언간의 차이점을 조절하면 민족어가 되는 것이고, 제 민족어간의 공통점들을 계통 세우면 언어분화의 계통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곤충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곤충이 전 동물의 4분의 3 내지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곤충들은 대륙에 따라 그 곤충상이 다르고 같은 대륙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의 곤충상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같은 지역에 있어서도 소지역인 지방에 따라서 각 지방 곤충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해서 생각하여 각 지방의 곤충상간의 차이를 조절하면 지구상의 전 육지를 먼저 몇 개의 큰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지역을 다시 소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조선전토를 도군면동(道郡面洞)의 순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과 같다.(중략...)

이만하면 방언과 곤충 간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보다 지방차와 개체차로 보아 공통점이 많아서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연구할 수도 있겠고 또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해방 전에 경성대학 제주도시험장에 2년여나 체재해 있었는데 제주도의 특이한 방언들을 들을 때 곧 방언과 곤충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

나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득의(得意)의 연구인 집류를 종별로 분포상태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약간의 단어를 선택하여 그 분포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을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일면 문헌을 약간 조사하는 중 이 방법은 벌써 길리롱(Gilliron)이 불란서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

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많이 취급되어 있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일본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은 것을 알고는 불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에 온 이상 이런 기회에 곤충을 채집하는 한편 방언의 단어도 많이 모아서 조선어학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의의(有意義)한 일임을 느껴서 단어수집에 상당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 만 이 년간에 수집한 단어는 7000이 되어서 일단락을 지었고, 그 때는 해방되는 해라 차차 시국이 달라져감을 깨닫고 5월에는 그만 귀경하였다. 수집된 단어의 수는 상당히 많으니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리하면 유의의한 것이 틀림이 없는 일이다. (하략…)(석주명, 1992a: 79-82쪽)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의 학문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다른 이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것을 찾아 연구하려 하였다. 하여 그는 전문 언어학자가 언어지리학의 차원에서 전국적인 언어지도를 그려주기를 희망하면서 자신은 제주어 어휘 수집에만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언어지도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언어지리학을 제주어에 대입시키려 했던 석주명의 시도는 무척이나 값진 일이었다(강영봉, 2002: 5쪽 참조).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어 연구의 대가인 小倉進平이 제주어를 간접 연구하는데 그쳤다면, 석주명은 제주도 현지에서 직접 어휘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는 데 그 가치가 크다(한국방송공사, 1980: 현용준 인터뷰에서).

석주명은 『제주도방언집』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석주명, 1947d: 서[序]).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년여를 필자는 제주도에서 생활할

기회를 가졌다. 경성제국대학부속생약연구소제주도시험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전문하는 학문 외에 틈틈이 수집한 제주도 자료의 하나가 이것이고,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말기의 일이라 물론 노골적으로는 못하였으나, 소위 대학의 관리라고 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었던 관계로 능률을 내었다. 1945년 5월에 개성에 있는 본소로 전근할 때도 다행히 아모 손실이 없이 와서, 내면적으로 틈틈이 정리하다가 8월 15일 우리민족이 해방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 곧 이것을 표면에 내놓고 정리에 분망하였다. 그리고 1947년 6월에 들어와서야 탈고하게 되었으니 이 일은 전후 5개년에 긍(巨)한 것이다.

이것을 완성하기에는 표준어를 비롯하여 지방어를 교시하여주신 여러 동무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책임을 분명케 하기 위하여 그 곳마다 그 동무들의 존명을 기록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이제 여기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여기서 본서의 내용에 대하여 조금 기록하고 싶다. 제1편 방언집의 내용인 어휘는 좀더 장기간을 허(許)하였다면 좀더 수집할 수가 있겠고, 이 제1편을 기초로 한 제2편 고찰은 어학자라면 좀 더 발전시켰을 것이다. 전문외(專門外)인 필자라도 공통방언을 %로 계산해보고도 싶었으나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필자는 그 경향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다.

1947. 6. 25, 서울에서 지은이 씀

『제주도방언집』은 제1편 제주도방언집, 제2편 고찰, 제3편 수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1편 제주도방언집은 일반사전이라기보다는 가나다순으로 제주어를 표준어에 대응시킨 7000여 어휘집이다. 석주명은 『제주도방언집』을 통해 한낱 외딴 섬의 방언에 불과했던 제주어를 표준어와 어깨를 나란하게 했다. 그리고 『제주도방언집』은 곤충학자 석주명을 언어학자의 반열로 끌어올리고 있다.

석주명은 어휘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7000여 어휘를 분석하여, 제주어와 육지의 다른 지방(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의 방언과의

공통점을 찾고, 일부는 조선고어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¹⁸⁾ 그리고 곤충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지방 곤충상 상호간의 유연관계(類緣關係, Affinities)를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 각 어휘 중에서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등의 방언들과의 공통점을 뽑았다. 즉 나비분류학에 쓰이는 연구방법을 방언연구에 응용한 것이다(석주명, 1948c; 1992a: 81쪽 참조). 그는 자신의 연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방법은 별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곤충학에서는 흔히 쓰이는 것이나 방언 연구에 응용한데 의의가 있고, 필자가 감히 전문외의 학문에 손대게 해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제주도 곤충조사와 제주도 방언 내지 제주도 조사 간에 좀 더 크게 말하면 나의 곤충학과 제주도학¹⁹⁾ 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제주도 접류의 진상은 제주도 전모를 구명함에 있어서 더욱 잘 인식되는 때문이었다(석주명, 1992a: 81-82쪽).

그 결과 그는 제주어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분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제주어 7000여 어휘 가운데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각각 340개와 338개로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어가 그만큼 특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방언들 간의 공통어를 찾는 과정에서 각 지방에서의 방언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석주명, 1947d: 97쪽). 각 지방의 방언사전이 있었다라면, 제주어와 여러 방언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데 수월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18) 석주명은 제주어 가운데 340여개가 우리의 고어(古語)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小倉進平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제주어에 이처럼 많은 고어와 ‘, ’음이 남아있어서 제주어는 우리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가치 있는 자료임을 강조한다(석주명, 1947d, 123-127쪽 참조).

19) 원문에는 ‘제주도’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제주도학’의 탈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의 방언과는 일치하지만 이른바 표준어와 다른 18개 어휘²⁰⁾를 제시하면서 이들은 서울 부근의 말이나 책에 나오는 말과 상이할 뿐이지, 그 분포상태로 보아서 단연 표준어로 편입시켜야 하고, 소위 표준어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도방언으로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석주명, 1947d, 115쪽 참조). 수도권에서 쓰는 말만 표준어로 할 게 아니라 전국에서 널리 쓰는 말도 표준어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 보편언어로서의 국제어는 강대국의 언어가 아니라 중립어라야 한다는 주장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방언사전이 필요하고, 전국에서 널리 쓰이는 말은 서울말이 아니라도 표준어로 편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강영봉은 석주명이 ‘제주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구분하였으며, 제주어와 외국어를 비교한 것은 제주어에 대한 그의 공로라고 본다(강영봉, 2002: 10-12쪽 참조). 석주명은 제주어를 연구하면서 외국어(중국, 몽골, 만주, 일본)에서 유래한 어휘가 어떤 것이지를 탐색하고, 더 나아가 말레이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과의 관계도 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제주어 전문가의 몫으로 남긴다(강영봉, 2002; 2008 참조).

석주명은 제주어 7000어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용비어천가』(1445), 『두시언해』(1481), 『훈몽자회』(1527), 『송강가사』(1747) 등의 우리의 고전들,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1944) 등의 일본학자들의 연구

20) 꼭감(곶감), 골미(골무), 팔썸허다(팔시하다), 기매키다(기막히다), 냄비(남비), 다문(단), 멩기다(다니다), 떠멍기다(떠다니다), 매끼다(말기다), 뽀뽀(뽀뽀), 서답(빨래), 장스꾼=장사꾼(장사야치), 쟁길잠(잠길잠), 질렘(전염), 질들다(길들다), 즈취=자취(자취), 춤(침), 패(파派) 등.

성과, 방중현, 이승녕, 최현배 등 우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88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이것은 이미 그가 국어학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석주명은 제주도 방언에 다소라도 관계된 것을 뽑아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제주도방언집』의 제3편 수필 부분은 그의 『제주도수필』과 함께 작은 제주문화사전 역할을 하고 있다.

2.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 제주도 인구론 -』의 의의

『제주도(濟州島)의 생명조사서(生命調査書)』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제주도의 인구론이다. 석주명은 종래의 호구조사와 인구조사에 한계를 느껴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1944년 2월 7일부터 1945년 4월 5일까지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연구 일정표²¹⁾

조사한 곳	조사기간	분석일	분석한 곳
토평리	1944. 2. 7. - 25.	1944. 3. 12.	토평리
법환리	1944. 4. 15. - 18.	1944. 4. 30.	토평리
신하효리	1944. 4. 3. - 17.	1944. 7. 23.	토평리
함덕리	1944. 10. 26. - 30.	1944. 11. 19.	토평리
교래리	1944. 10. 31. - 11. 1.	1944. 11. 19.	토평리
상도리	1945. 1. 29. - 30.	1945. 2. 15.	토평리
송당리	1945. 1. 31. - 2. 1.	1945. 2. 17.	토평리

21) 표에서 대정(3개리)은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에서 화순리를 분석한 날짜와 장소가 - 1945. vi. 31. 於開城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석주명이 5월에 개성으로 돌아간 것을 고려한다면, 1945년 5월 31일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석주명, 1949d: 143쪽 참조).

성읍리	1945. 2. 3. - 4.	1945. 2. 19.	토평리
오라리	1945. 2. 24. - 25.	1945. 3. 8.	토평리
명월리	1945. 2. 27. - 3. 2.	1945. 3. 21.	토평리
대정(3개리)*	1945. 3. 13. - 14.	1945. 4. 8.	토평리
화순리	1945. 3. 14. - 16.	1945. 5. 31.**	개성
의귀리	1945. 3. 27. - 28.	1945. 6. 1.	개성
토산리	1945. 3. 28. - 29.	1945. 6. 2.	개성
저지리	1945. 4. 3. - 4.	1945. 6. 8.	개성
용수리	1945. 4. 4. - 5.	1945. 6. 9.	개성
총괄		1945. 7. 18.	개성

<표 1>을 검토해보면, 석주명이 인구조사 자료들을 제주도에서 다 분석하지 못하고, 개성으로 복귀해서 해방 직전까지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석주명이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에서 개성의 본소로 복귀하고, 다시 수원의 '농사시험장'으로 전근하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가 출간일이 1949년 11월 1일이니 자료 분석을 끝내고 완성된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4년이 더 소요된 셈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인 제주4·3을 겪게 되고, 조사 대상이었던 중산간 마을들은 폐허가 되고 만다.²²⁾ 그렇기 때문에 석주명은 이 책은 출판과 동시에 고전이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석주명, 1949d: 3쪽).

22)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작전은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4·3사건으로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는데, 대부분 이때 방화되었다. 제주4·3연구소 홈페이지(www.jeju43.org) 4·3전개과정 참조.

이 연구에 착수한 것은 1944년 2월이니 지금으로부터 꼭 만 5년 전이었다. 이 5년이란 세월은 지구 위에서 일어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동을 포함하여서 그 영향은 우리 제주도에도 미쳤다는 것보다 제주도에 야말로 예기치 못하였던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그 안정성을 찾기에는 까마득하다.

지금의 제주도의 형편은 해안 일주도로 이상부(以上部)의 인가가 모두 폐허로 되었다니 이 책에서 다뤄진 토평리, 교래리, 송당리, 성읍리, 오라리, 명월리, 의귀리, 토산리의 반쪽 제1구, 저지리 등 8.5부락의 기록은 벌써 역사적 기록으로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거기 따라 해안부락의 인구동태도 격변했으니 이 책은 출판과 동시에 고전으로 되어서 더욱 의의가 있다. ...

- 1949. 2. 19 서울에서 -

그는 제주도 전체 인구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제주도 전체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하였다. 즉 인구가동이 심하지 않고 외래풍이 많이 수입되지 않은 마을 가운데 산남과 산북, 동부와 서부, 해안과 내륙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9개면 16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석주명은 제주도가 잡혼, 재혼, 중혼 등이 많아서 자녀를 출산한 상황을 여자로부터 자세하게 듣는다는 게 어렵다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인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父) 또는 부(父)였던 사람에게 조사표 1매씩을 배당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자녀 전부를 수록하였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제주도의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을 고루 추출하고 제주도의 전체 마을수의 10%에 해당하는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의 인구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석주명은 십여 년 간 수십만 마리의 나비를 측정하고 통계내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나비분류학의 방법을 제주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로 인구조사에서도 응용하였다. 다만 제주어의 유래와 분포 등을 언어들 간의 유연관계를 가지고 규명했다면, 인구조사에서는 주로 통계학적 방법을 가지고 규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수십만의 나비를 하나하나 측정하고 통계내어 분류했던 것처럼, 제주도의 마을별, 나이별, 성별, 생사(生死)별, 거주지별 등의 인원수를 일일이 조사하여 통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특징과 그것의 자연 및 사회 환경 등의 원인을 추리함으로써 당시 제주사회의 실태를 규명하였다.

그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비연구에서 사용하던 측정, 통계, 분류, 분석 방법 등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호랑나비(*Papilio xuthus* LINNÉ)의 앞날개 길이 측정표(석주명, 1972: 209쪽 참조)와 16개 마을 총계의 인구구성표(석주명 1949d: 184쪽 참조)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는 나비연구에서는 봄형과 여름형, 암수의 구분에 따라 측정하고 통계를 내었지만, 인구조사의 경우는 남녀별, 연령별, 마을별, 생사별, 현지 거주자와 타지로 출가자 등에 따른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사회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들을 추론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를 통해 일제강점기 말기의 제주사회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6개 마을의 호수와 조사표수를 비교했을 때, 조사표수(4,851)/호수(4,689)가 약 1.0인 것으로 보아(석주명, 1949d, 168쪽), 제주도에서는 결혼하여 자식을 두게 되면 대부분 세대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제주도 가족제도의 중요한 특징인 철저한 분가제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둘째, 여다(女多)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 인구의 연령대별 성별 인구 변동의 추이를 보면, 16개 마을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산아(産兒)의 성비는 52:48로 남자가 많으나 출가자를 포함한 마을주민의 성비는 48:52로 역전되어 여자가 많았다(석주명, 1949d, 172쪽). 그리고 출산된 자녀의

70%가 주민(출가자 포함)을 구성하고 30%는 사망하는데, 사망비율은 16:14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이는 제주도에 여자가 많은 가장 큰 원인은 남자가 많이 죽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일제강점기 말기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남녀의 비율은 41:59로 여자가 월등히 많아서 남자의 1.5배나 되었다. 석주명은 이처럼 여자가 월등히 많아지는 것은 출가(出稼)가 주원인이고, 출가자가 그처럼 많은 것은 자연이 그만큼 척박한 때문이고, 제주도 여자가 노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자연이 척박하고 남자가 출어(出漁)를 하기 때문으로 진단한다(석주명, 1949d, 187쪽).

이를 종합하자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고, 15세 이하의 유년기까지는 남자가 많다. 하지만 남자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남녀 성비가 역전되고, 16세 이후가 되면 남자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되어 여자활동인구가 많아져서 여다(女多) 현상이 나타난다(석주명, 1949d, 187쪽). 이 조사는 제주4·3 이전에도 제주도는 여다(女多)의 섬이었고,²³⁾ 특히 제주4·3때 성인 남자들이 많이 희생됨으로써 여자가 많은 섬으로 더욱더 굳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제주4·3 이전에 16개 마을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그리고 석주명의 인구조사 자료는 제주4·3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와 2007년 3월 14일 현재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제주4·3희생자 명단(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봉행위원회, 2011 참조)을 비교해보면 제주4.3으로 인한 제주섬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석주명의 인구조사가 1945년 4월에 끝났고, 그해

23) 석주명은 다른 곳에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자료 등을 인용하여 제주도가 예전부터 여다(女多)의 섬임을 밝히고 있다(석주명, 1968: 199-203쪽 참조).

8월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왔고, 제주 4·3 당시 실제로 희생된 사람이 정부에서 공식 확정한 희생자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의 두 자료만 가지고 제주4·3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유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를 통해서 본 제주4.3 피해

조사한 곳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2007년 확정 4.3희생자수	희생자수 /호수
	호수	인구수 (현주자+외주자)		
토평리	360	1645 + 80	91	0.25
법환리	430	1963 + 234	16	0.04
신하효리	530	2678 + 249	72	0.14
함덕리	800	3671 + 326	261	0.33
교래리	55	304 + 13	76	1.38
상도리	130	657 + 59	49	0.38
송당리	220	1139 + 86	83	0.38
성읍리	251	1113 + 73	73	0.29
오라리	267	1451 + 104	232	0.87
명월리	420	1973 + 184	130	0.31
대정(3개리)	225	1417 + 117	92	0.41
화순리	303	1483 + 127	26	0.09
의귀리	188	963 + 102	241	1.28
토산리	160	793 + 70	160	1.00
저지리	190	869 + 65	114	0.60
용수리	160	852 + 76	18	0.11
총괄	4689	22971+1965	1734	0.37

그러나 표2에서 마을의 호수와 공식 확인된 마을별 희생자만을 비교해보더라도, 즉 16개 전체 마을 희생자수(1734명)/호수(4689호)가 0.37

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세 집에 한 명 이상 희생되었고, 중산간마을에서는 평균 두 집에 한 명 꼴로 희생되었으며, 특히 토산리 1.00, 의귀리 1.28, 교래리 1.38 등을 감안한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주도관계문헌집』의 의의

『제주도관계문헌집(濟州島關係文獻集)』은 제목이 보여주듯이 제주도와 직접 관련되거나 제주도에 대해서 언급한 단행본과 논문 총 1,074종의 문헌을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문헌 제목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논저들을 서지학적으로 배열한 것이다(석주명, 1949g: 240쪽). 그의 다른 연구서들은 자신이 직접 ‘제주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것이라면, 이 책은 ‘제주도에 대한 연구’, 즉 ‘제주학’을 위한 1, 2차 문헌들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서 제주학을 위한 필수 자료이다.

석주명은 『제주도관계문헌집』에서, 제주도(濟州島)를 월등하게 많이 다룬 학자들로 ‘식물학’의 中井猛之進, ‘제주도학(濟州島學)’의 石宙明, ‘사회학’의 善生永助, ‘동식물학’의 森爲三, ‘방언학’의 小倉進平 등 다섯 사람을 들면서, 자신을 분명히 제주도학 연구자로 명시하고 있다(석주명, 1949g: 244쪽). 그는 제주도의 가치를 알고, 제주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깨닫고 ‘제주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이 단순히 필드의 수집가가 아니라 제주도와 관련해서 양과 질에서 풍성하면서도 다양한 연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관계문헌집』은 제1장 저자명순, 제2장 내용순, 제3장 주요문

헌 연대기순, 제4장 서평, 제5장 총괄 등 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 저자명순’에서는 우리나라 저자들은 가나다 순으로, 일본인 저자들은 ㄱ ㅋ ㆁ 순으로, 서양인 저장들은 abc 순으로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어서 저자의 이름만 알면 쉽게 관련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 내용순’은 다시 제1절 총론부, 제2절 자연부, 제3절 인문부로 나뉘는데, 총론부는 제주도와 관련해서 총론적인 성격의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2절 자연부는 다시, 기상, 해양, 지질광물, 식물, 동물, 곤충 등 제주도의 자연을 6개 분야 총 433편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곤충 부분을 따로 분류한 것은 석주명 자신이 곤충학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자연과학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인문부에서는 다시, 언어, 역사, 민속, 지리, 농업, 기타산업, 정치·행정, 사회, 위생, 교육·종교 등 총 11개 분야 총 599편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이 제주도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제주도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천착(穿鑿)하였던 것이다.

‘제3장 주요문헌연대기순’, ‘제4장 서평’, ‘제5장 총괄’ 등의 부분은 『제주도관계문헌집』이 단순한 문헌목록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석주명은 ‘제3장 주요문헌 연대기순’에서 제주도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주도 관계 단행본(◎) 26권, 제주도 관계 논문(○) 121편, 제주도를 논급(論及)한 단행본(⊗) 10권, 제주도를 논급한 논문(×) 26편을 등 183편만을 추출하여, 각각 ◎, ○, ⊗, × 등으로 표기하여 놓음으로써 제주학 연구자들이 관련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 서평’에서는 제주도 관계문헌 가운데 27권의 문헌들에 대해 간단하게 평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정종의 『제주도요람, 1930』의 경우 “내

용이 비교적으로 충실하여 훌륭한 책이다.”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탐라지보유, 1932, 1934, 1936』의 경우 “2편을 합친 책인데 중판하면서 추보(追補)하였다. 7000부나 소화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으로 보아 추천할 수 없는 책이다.” 杉山行一의 『제주도 요람, 1942』의 경우 “저자 자신이 경영하는 관광안내소의 선정용으로 인쇄한 것이지만 잠시 오는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팸플렛이다.” 등으로 한두 줄로 간략하게 해제해 놓고 있다.

‘제5장 총괄’에서 제주도에 관한 주요 논저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66편의 논저를 발표한 中井猛之進은 ‘조선식물’을 테마로 한 세계적 식물 분류학자로 조선문화에 공헌이 가장 큰 사람의 하나이다.

47편의 석주명은 ‘조선산집(朝鮮産蝶)’을 전공하나 ‘제주도’가 그의 연구 테마의 또 하나이다.

43편의 善生永助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구 조선총독부의 어용학자였다.

31편의 森爲三은 ‘조선의 동식물’을 조사한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 그 업적에 조루성(粗漏性)은 있으나 전형적인 고등학교 정도의 교수로 일본국가의 난숙성(爛熟性)을 표시하는 인물이었다.

30편의 小倉進平은 ‘조선방언’을 테마로 한 세계적 언어학자로 조선문화에 공헌한 바 가장 큰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석주명, 1949g: 242-243쪽).

그리고 그는 그들을 논저 편수만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제주도 연구에 공헌한 정도를 다음과 같이 다시 질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석주명, 1949g: 247쪽).

〈표 3〉 제주도 연구에 공헌한 주요학자들

	제주관계 단행본	제주관계 논문	제주논급 단행본	제주논급 논문	계
石 宙 明	3	11	-	-	14
原口 九萬	1	11	-	-	12
森 爲 三	-	12	-	-	12
中井猛之進	-	9	-	-	9
秋 葉 隆	-	2	1	2	5

학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 당시 시대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대의 학자들을 바라보는 석주명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제주도 연구, 즉 제주학의 독보적 존재임을 자부하고 있다. 『제주도관계문헌집』 출판 당시(1949. 11. 1)에 ‘제주도총서’ 6권 가운데 3권만 출판되었지만, 이미 나머지 3권도 탈고되어 출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석주명이 제주학의 최고 전문가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석주명은 자신이 읽었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모든 책들을 저자명순, 내용순, 연대순 등으로 분류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주요한 문헌들과 저자들을 추려내고, 자신의 관점에서 질적인 평가를 하였다. 어떤 것을 잘 모르면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주명은 제주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문헌들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관계문헌집』의 말미에 있는 <추가분>에서 그동안 빠뜨린 문헌 일부와 출판 직전에 나온 최신의 논저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지적 성실성을 엿볼 수 있다. 60여 년 전 석주명 혼자

노력으로 작성한 『제주도관계문헌집』을 보노라면, 아직도 제주학과 관련된 제대로 된 논저목록 하나 없는 제주학계의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의 『제주도관계문헌집』의 앞으로 제주학 관련 논저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수 참고서가 될 것이다.

4. 『제주도 수필 -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의 의의

『제주도수필(濟州島隨筆) -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은 1949년 5월에 탈고하여 1950년 6월에 이미 교정 완료된 상태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석주명 생전에 나오지 못하다가 그의 회갑을 기념하여 1968년 11월에야 그의 동생 석주선에 의해 발간된 첫 유고집이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 수필집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내용으로 볼 때,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사회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 있어 작은 제주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최낙진, 2008: 47쪽). 이 책은 서문(序), 오돌또기(원 제목 ‘오돌뚝’) 악보와 가사²⁴⁾, 1장 총론, 2장 자연, 3장 인문 등으로 나뉘고 있다.

제1장 총론에서는 제주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육지부)에는 있지만 제주섬에는 없는 당시 풍경(風景)으로 까치와 포플러를 들고,²⁵⁾ 반대로 육지부에는 없고 제주섬에만 있는 풍태

24) 석주명이 채보한 제주민요 ‘오돌또기’의 악보와 가사는 “오돌뚝”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수필』에 실려 있다. 『제주도수필 -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 보진재, 1968, 참조. 『제주도수필』은 1949년 5월 15일에 탈고하여 1950년 6월엔 이미 교정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출간하지 못하고, 1968년에야 발간되었다(2008년 서귀포문화원에서 재발간한 『제주도수필』에는 석주명의 서(序)와 “오돌뚝”의 악보와 가사가 빠져 있다). 한편, 강문철에 따르면, 제주민요 오돌또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60년대에 김국배가 채보 및 편곡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김병택, 2011, 152-164쪽 참조).

25) 석주명은 “까치는 까마귀가 많은 이 섬에 부적(不適)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으나(석주명, 1968: 5쪽), 1980년대에 제주도에 인위적으로 까치를 들여오으로써 지금

(風態)로 밭뽕기와 해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다르기는 해도 동식물의 성립분자를 놓고 볼 때 일본보다 한반도의 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 분자의 대부분이 한반도와 공통되어 생물학상으로 한국의 부속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석주명, 1968: 5쪽). 그리고 석주명은 1295년, 1580년, 1771년, 1880년 등의 우리나라의 옛 자료와 일본학자들의 자료들을 통해 제주도의 (특)산물들을 보여주면서, 300여개의 오름, 비자림, 김녕굴, 제주도특산 동식물 등은 세계제일이고, 감귤원, 돌, 비바람, 여자, 소, 말, 고사리, 까마귀, 진드기, 자생아열대식물, 해녀, 장수자 등은 한국제일이라 보고 있다(위의 책: 6-7쪽).

최근 세방화(globalization)시대가 되면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다움’과 ‘제주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산업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석주명은 육지에는 있고 제주도에는 없는 것과 육지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것 등을 통해서 제주다움을 찾으려 하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세계제일과 한국제일을 통해서 가장 제주적인 것을 찾는다. 제주적인 것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들과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는 나비연구를 통해서 나비마다 지역적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자연과 문화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제주적인 것(또는 제주다움)의 가치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주적인 것’인 것이 곧 이상적인 것이라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많은 것은 그 지역의 강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적인 것’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아우르면서 제주도의 자원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제주인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은 제주도가 까치 천국이 되고 있다.

‘제2장 자연’에서는 제주도의 기상, 해양, 지질·광물, 식물, 동물(곤충 제외), 곤충 등의 분야를 각각 사전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의 『제주도관계문헌집』에서와 순서와 동일하다. 석주명은 여기서 제주자연의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이 보고, 듣고, 읽고, 직접 연구한 것들을 각각의 분야에서 가나다 순으로 스케치하고 있다. 즉 제주도 자연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의 관점에서 중요하거나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이 제주의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의 문헌들을 꼼꼼히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인문’에서는 제주의 전설·종족, 방언, 역사, 외국인과의 관계, 관계인물, 민속, 의식주, 일상생활, 지리, 도읍·촌락, 산악, 도서, 지도, 교통·통신, 농업, 임업, 축산, 수산, 기타산업, 정치·행정, 사회, 인구·특수부락, 위생, 교육·종교, 문화 등 총 25절로 나뉜다. 이 책 전체를 놓고 볼 때 ‘제2장 자연’ 분량이 50쪽인 데 반해, ‘제3장 인문’은 그보다 훨씬 많은 278쪽에 이른다. 그리고 ‘자연’ 분야에서는 선행연구자들, 특히 일본학자들의 성과를 많이 인용하였으나, ‘인문’ 분야에서는 주로 석주명 자신이 직접 원자료를 읽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점에서 그는 제주도과 관련해서는 인문학자이자 사회과학자라 할 수 있다.

석주명은 언어, 풍속, 문화 등에서 한반도(육지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제주다움’과 ‘제주적인 것’을 찾지만, 그것들 가운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것들과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는 제주도와 멀리 떨어진 평안도와의 공통점으로 언어, 여자들의 옷, 돛통시, 소의 거세, 밥 짓는 법(좁쌀을 백미 넣은 후 끓이면서

넣는 것) 등을 든다(석주명, 1968: 122쪽). 그리고 일본과의 공통점으로 바느질하는 법, 아이 엮는 법, 여자가 짐을 머리에 이지 않는 것, 여자가 내외(內外) 얹는 것, 부엌에 솔을 걸되 온돌에 붙이지 않고 돌로 짠 솔떡을 만드는 것, 휘파람부는 습관 등이 있고(위의 책: 111쪽), 몽고와의 공통점으로 모자, 의복, 신에 모피를 사용하는 것, 목마(牧馬)가 성하고 말을 잘 구사(驅使)하는 것, 말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 우마견(牛馬犬)의 귀를 절단하는 것, 바람으로 선평(選穀)하는 것, 애기구덕, 일부 언어 등이 있다(위의 책: 90쪽). 이는 제주도의 언어, 풍속, 문화에서 제주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는 우리의 옛것이거나 몽고나 일본 등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석주명은 돛통시가 제주도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분을 돼지 사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제주도 독특한 것은 아니다. … 이제 이 변수 겸 돈사의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제주도 외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한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회령, 양구, 통영, 거창, 합천, 광양의 여러 지방, 중국 내몽고 서부, 산둥성 전부, 산서성 동·중부, 만주 용정, 오키나와, 필리핀 전역 등이다”(석주명, 1968: 96-97쪽). 이처럼 돛통시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돛통시가 제주적인 것으로 알려진 계기가 무엇이고, 제주도의 돛통시가 다른 지역의 돛통시와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주명은 제주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즉 (외지인의 관점에서) 그는 제주인들이 자랑하는 영주십경에 대해서 “명승으로 영주십이경이라고 소개된 것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하나도 신통할 것이 없다. 다만 제주도가 남해의 절도(絶島)요 고산(高山)이니 그 섬 자체 즉 한라산이

재미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석주명, 1968: 115쪽)고 평하고 있고, 백록담에 대해서는 “한국 남단에 있는 한라산정의 화구호이니 북단의 백두산 천지와 더불어 옛날부터 전설로 풍경으로 선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백두산의 천지와는 비교될 바가 못 되고, 수심이 상당하다고 선전되어 있지만 한천(旱天)이 계속될 때는 고갈하는 정도이니 대수롭지 않다. 녹담만설이라고 영주십이경 혹은 제주십경에 끼워 제주도에서는 자랑할 만하다고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위의 책: 129쪽)라고 평하고 있다.

제주인들이 외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과 외지인들이 제주도에 서 보고 특이하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주인들이 생각하는 ‘제주다움’(또는 ‘제주적인 것’)과 외지인들이 생각하는 ‘제주다움’이 다를 수가 있다. 석주명은 자연과학도이자 외지인으로서, 그리고 제주도를 아끼는 반(半)제주인으로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주다움’과 제주도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였다.

여동생 석주선은 이 책의 발문(跋文)에서 “오빠! 오는 음(陰) 9월 23일(1968년 11월 13일)이 바로 오빠의 회갑이어요. 회갑이 되기 전에 오빠의 유고를 정리했으면 해보았읍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던 중 오빠의 친우 김교영(金教英) 선생님의 정성으로 제주도총서 중에 하나인 제주도수필이 출간케 되었습니다. ... 오늘 회갑을 맞이하여 삼가 영전에 손수 쓰신 책을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라고 쓰고 있다. 어쩌면 사장되고 말았을지도 모를 석주명의 업적들의 상당 부분은 석주선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되살아났다고 할 수 있다.

5. 『제주도곤충상』의 의의

『제주도곤충상(濟州島昆蟲相)』은 1950년 6월에 편집완료 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출간되지 못하고, 20년이 지난 1970년 8월에야 유고집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곤충학자이자 제주학자인 석주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제1장 연구사, 제2장 총목록, 제3장 총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 연구사’에서는 제주도 곤충과 관련된 논저 106편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덧붙이고 있다. 이를테면 1847년 제주도산으로 *Coptolabrus monilifer* 1신종을 발표한 타텀(Tatum T.)의 논문²⁶⁾에서부터 1950년 제주도산 *Episcapha moravitzii moravitzii* (Solsky)와 *E. flavofasciata* (Reitter)의 2종을 다룬 荒木東次の 논문²⁷⁾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곤충과 관련된 총 106편의 논저에서 다뤄진 내용과 체제, 특히 거기에서 발표된 제주도산 곤충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1장의 말미에 연대별 편수, 국적별 편수, 저자별 편수 등을 분석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석주명 22편, 村山釀造의 13편, 조복성 8편 등 주요 곤충학자들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제주도 곤충과 관련해서 단연 자신이 독보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2장 총목록’에서는 제주도산 곤충 19목 141과 737종에 대해서 등장하는 출처, 즉 학술지, 보고서, 곤충도감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어 후학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일러두기(석주명 자신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서 다음을 밝히고 있다.

26) Tatum T.(1847), “Description of two species of Carabus from Asia” *Ann. Mag. Nat. Hist.* ser. 1, vol. 20, 14-15쪽.

27) 荒木東次(1950), <オビオキノコ屬(大覃虫科)に就いて>; 『寶塚昆蟲官報』 제65호, 1-6항.

1. 본 목록은 1950년 현재로 줄져 제주도총서 제3『제주도관계문헌집』 중 <곤충부>에 수록된 문헌을 기본으로 삼아 편한 것이다. <곤충부>는 비교적 완전한 줄 알았더니 역시 빠진 것이 적지 않아서 이는 개정시에 증보코저 한다.

2. 배열은 江崎悌三博士(일본곤충도감, 곤충강분류표, 1932)에 준하였고, 과(科)이하는 모두 학명의 알파벳 순으로 하였다.

3. 나비 종류만은 편자의 전문인 관계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정리하였지만 기타 부분에서는 각 저자의 의견에 맹종한 데가 많다.

4. 岡本半次郎博士의 대저²⁸⁾는 편자전문인 나비를 통해서 볼 때 의심스런 데가 많아서 전체로 믿기 어려운 저서이다. <나비부>만은 편자의 입장에서 대략 취사선택하였지만 기타 부분은 거의 그대로 포섭하였는데, 전문 외인 편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타 부분의 것에도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짐작하겠으니, 금후 적당한 인사가 나타나서 본편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정리하여야 하겠다. …(석주명, 1970: 17쪽)

이처럼 석주명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출처와 그 한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장 총괄’에서는 제주도곤충 19목(目) 141과(科)의 한국명, 학명(라틴어), 각 과(科)에 대한 737종(種)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나비목(目)은 30과(科) 255종(種)으로 전체 곤충의 3분의 1에 이르며, 특히 그 가운데 나방을 제외한 제주도의 나비는 7과(科) 73종(種)이다.

석주명은 73종의 제주도의 나비들 가운데 제주를 대표하는 나비로 ‘제주왕나비(*Danaus tytia/Parantica sita*)’를 꼽는다(석주명, 1992b, 53쪽). 그는 ‘제주왕나비’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8) Okamoto. H.(1924), “The Insect Fauna of Quelpart Island” *Bull. Agr. Exp. Chos.* vol. 1, no.2. 석주명은 여기에 기재된 것은 527종이지만 타지산(他地産)이 기록된 것도 적지 않아서 인용하기 어려운 책이라 평하고 있다.

*Danaus tytia*의 종명(種名)이요, 속명(屬名)이요, 또 과명(科名)으로 우리 조선에는 1과 1속 1종이 날 뿐이다. 조선서는 중조선(中朝鮮) 이남에 분포하고 서조선이나 북조선에는 보기 어려운 남방 계통의 우미(優美)한 종류이다. 제주도에서만은 전도(全島)에서, 즉 해안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널리 분포해 단연 제주도를 대표하는 나비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1945년 이 나비를 제주의 대표나비로 하고 ‘영주왕나비’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일이 있다. ‘영주’는 제주도의 옛 이름이다(석주명, 1947c; 이병철, 2002: 336쪽).

석주명은 한국산 250여종의 나비 분포를 250장의 우리나라 지도와 세계지도에 그려내었다. 그것이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한국산 나비 동종이명 목록)과 함께 그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한국산접류분포도』이다.

그는 ‘제주왕나비’를 『한국산접류분포도』의 첫머리에 자리매김하였다(석주명, 1973: 2쪽). ‘제주왕나비’는 제주도에서는 1년에 3회, 내륙에서는 2회 발생한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1화 개체들이 태풍과 같은 기상으로 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내륙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9: 173쪽; 김용식, 2002: 209쪽). 그러나 후에 학자들은 ‘제주왕나비’가 태백산맥에서도 발견된다는 이유로 ‘제주왕나비’를 ‘왕나비’로 바꿔놓았다. 아쉬운 일이다. 곤충학자들의 철저한 논증을 통해 ‘왕나비’가 ‘제주왕나비’로 다시 정명(正名)되기를 기대한다.

석주명은 『제주도곤충상』에서 나비목(目) 부분만 상세할 뿐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들을 바로 잡아서 제주도 곤충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연구를 하는 것은 후학들의 과제이다.

6. 『제주도자료집』의 의의

『제주도자료집(濟州島資料集)』은 ‘제주도총서’의 마지막 권으로 잡지에 기고했던 제주도와 관련된 글들을 모은 것으로 1950년 6월 탈고되었지만 1971년 9월에야 유고집으로 발행되었다. 이 책은 장과 절이 따로 나뉘었지 않고 34편의 글과 석주명 자신의 업적목록으로 이뤄져 있다. 이 책은 전체의 3분의 2가 제주어와 관련된 글들로 『제주도방언집』의 자매편이라 할 만하다.

그는 이 책의 첫머리에 실린 “한국의 자태”에서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자기 자신을 알리는 말은 고래로 유명하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서 자처(自處)하기에 곤란한 때문이다.

이 말은 다만 개인에게 한(限)할 것이 아니고, 단체에도, 민족에도,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고로 한국 사람은 한국의 자태를 잘 알아야만 할 것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의 자태를 잘 압으로써, 한국의 문화재를 세계문화건설에 제공하여, 우리 한국도 열국(列國)에 끼어서 발언권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문화건설에 있어서 아무 이바지 하는 바 없는 국가나 민족은 국제간 혹은 민족간의 회합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는 법이다. ...

제주도에는 언어, 풍속, 관습, 기타에 있어서 고래로 육지와는 상이하다고 하여 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옛날 모습 내지 진정한 모습을 말해주는 자료가 많다. 진정한 한국의 자태를 찾으려면 제주도에서 그 자료를 많이 구할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고도(孤島)이므로 육지와 같이 외래문화에 침윤(浸潤)받을 기회가 적었고, 그리 작지 않은 면적과 인구는 고유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공기와 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의 특이성 내지 한국의 고유문화성을 귀한 줄을 모른다. 육지

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제주도에 2개년이나 생활한 경험으로는, 제주도는 한국의 자태를 밝혀줄 금쫓각같은 자료가 지극히 많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다.

이도(離島)후 4년만에 다시 와 보니 해방과 38선관계로 육지인들의 입도와 소위 육지문화의 침윤으로 제주도의 특이성이 없어져감을 느낀다. 그것도 필연적 현상이기는 하나, 하루바삐 한국의 식자(識者)들은 금쫓각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통 세우려고 노력해야겠고, 제주도민 일반도 많이 성원해주셔야겠다(석주명, 1948a).

이 글은 1948년 2월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 쓴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석주명이 왜 그토록 제주도 연구에 몰두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 4.3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공동체가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그가 해방 직전에 행했던 제주도 연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석주명은 “제주도명 지명을 포함한 동식물명”에서는 제주, 제주도, 탐라, 영주, 한라산 등이 포함된 식물명 100여개, 동물명 40여개를 열거함으로써 생명종 다양성 측면에서 제주도의 생물학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석주명, 1971: 11쪽). 그리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수집 제주도의 식물명 550여개, 동물명 330여개, 농업관련 550여개, 임업관련 90여개, 목축관련 300여개, 어업관련 110개 등의 제주어를 수집하여 남겼다.

뿐만 아니라 한자(漢字)의 음훈(音訓)에서 표준어와 다른 제주어 200여개를 수집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물(物)’은 ‘것물’(표준어 ‘만물물’)이고, ‘도(都)’는 ‘골도’(표준어 ‘도읍도’), ‘왓(曰)’은 ‘ㄱ를왓’(표준어 ‘갈왓’), ‘욕(浴)’은 ‘모용욕’(표준어 ‘목욕욕’), ‘사(使)’는 ‘부릴스’(표준어 ‘하여금사’) 등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자어로 뒤바뀌어 거의 잊혀진 190여개의

마을이름(洞里名)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다. 지금이라도 그 마을지명들을 제주어로 다시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제주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조선고어(朝鮮古語)와 외국어(몽고어, 일본어, 중국어, 말레이어, 만주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947년에 발행된 『제주방언집』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문 언어학자의 몫으로 남긴다.

『제주도수필』에서 제주학의 인문분야에 대한 석주명의 박학다식함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면, 『제주도자료집』의 “제주시조 고양부 삼씨고(濟州始祖 高良夫 三氏考)”, “탐라고사(耽羅古史)”, “토산당유래기(兔山堂由來記)” 등은 그의 인문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글들이다.

석주명은 자신의 연구업적 목록을 몇 차례 정리한 바 있지만, 『제주도자료집』 부록에서 그의 생전에 최종적으로(1950. 7. 1) 자신의 연구업적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그는 ‘제주도총서’를 통해서 제주도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남겼고, 그 가운데 『제주도자료집』 부록에서 일생동안의 자신의 연구업적에 대해서 가감(加減)없이 정리하고 있다. 그 점에서 『제주도자료집』은 제주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석주명 연구자들에게도 필수자료가 되고 있다.

V. 맺는 말

한때 제주도(濟州道)가 제주도(濟州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와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닮아보고자 제2의 하와이, 홍콩, 제2의 두바이를 꿈꾸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적인 것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가 되

면서 “제주다움이 경쟁력이다.”,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구호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석주명은 ‘제주적인 것’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다. 그는 6, 70년 전에 제주도의 특이한 자연과 문화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바삐 한국의 식자들이 금싸라기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행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곤충학도였던 그가 직접 제주도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 직접 뛰어들어 제주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제주도총서’를 결집(結集)해냄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매일 보는 사람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이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미 다른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은 그들과 비교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석주명은 나비채집을 하느라 전국을 거의 다 섭렵(涉獵)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2년간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제주도에 관련해서 보고, 듣고, 읽고,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철저히 기록하여 분석하고 분류하였으며, 그것들을 엮어 ‘제주도총서’를 만들어냈다.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는 자연과 인문사회 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곤충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전문가였다. 그러기에 그는 제주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참신성과 과감성을 가졌지만, 그만큼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제주도에 오기 전에 이미 나비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였다. 한 분야의 대가(大家)는 다른 비전문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한 권위어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점도 지닌다. 즉 나비연구의 대가였기에, 그가 범한 잘못 들마저도 대중들은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생겨난다.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가 범할 수 있는 작은 오류에 비해 그가 이룬 성과가 워낙 크다. 따라서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각 분야에서의 전공자들이 몫이다.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그가 남긴 자료들은 제주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제주도와 관련해서 그가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들은 제주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제주4.3 직전의 것들이어서 제주도 자연과 인문사회의 원형(原形)에 가까운 것들로, 그로 인해 그는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주도가 이뤄졌다. 당시 일본 어용학자들이 제주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들의 연구 목적은 자원을 수탈하고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양과 질에서 일본인 학자들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반(半)제주인의 입장에서 제주도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연구했고, 제주학 연구를 한국의 자태(姿態)를 밝히는 국학(國學) 연구의 연장으로 보았다.

셋째,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즉 나비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 분류, 분석 방법들을 방언연구, 인구조사, 문헌자료분류 등에서도 응용하고 있다. 그리 본다면 석주명은 이미 60여 년 전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문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문융합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넷째,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를 통해 통합학자가 되었다. 석주명의 학문연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다르다.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 이전에는 한낱 곤충학자에 불과했지만, 제주도 연구를 하면서 자연, 인문, 사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학자로 성장했다.

석주명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다. 많이 늦었지만 석주명 학문 전체에서 그의 제주학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문 전반에서 연구방법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제주학 분야에서도 양과 질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왔다. 그에 걸맞게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제주도 관련 석주명 논저

- 석주명(1937a), 「濟州島産蝶類採集記(一新亞種の記載を含む)」, *Zephyrus*, vol. 7, 150-174쪽.
- 석주명(1937b), 「濟州島の思ひ出」, 『地理學研究』 제14권 5호, 27-29쪽.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375-378쪽에 재수록, 『濟州島資料集』 190-193쪽에 「濟州島の回想」으로 번역 수록.
- 석주명(1941), 「濟州島の昆蟲」, 『文化朝鮮』 제3권 제4호(靑風號, 濟州島特輯), 52-54쪽.
- 석주명(1944), 「마라도エレヂー」, 『城大學報』 제80호, 2쪽. 『濟州島資料集』 182-184쪽에 「마라도 엘레지」로 번역 수록.
- 석주명(1945a), 「濟州島の蝶類」, 『科學時代』 19호, 40-41쪽.
- 석주명(1945b), 「濟州島の蝶類」, 『朝光』 제11권 제1호, 44-46쪽.
- 석주명(1945c), 「濟州島の女多現象」, 『朝光』 제11권 제2호, 39-41쪽. 『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149-156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6a), 「兎山堂由來記」, 『郷土』 9월호, 15-18쪽. 『濟州島資料集』 177-181쪽 및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173-178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6b), 「濟州島地名을 包含한 動植物名」,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 vol. 1, no. 1, 1-4쪽. 『濟州島資料集』 11-20쪽에 증보 재수록.
- 석주명(1946c), 「京城大學附屬生藥研究所濟州島試驗場附近의 蝶相」,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 vol. 1, no. 1, 5-9쪽.
- 석주명(1946d), 「濟州島南端部の 自然 더욱이 그곳의 蝶相에 대하여」,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 vol. 1, no. 1, 10-16쪽.
- 석주명(1947a), 「濟州島の蝶類」,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研究報告』 vol. 2, no. 2. 『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55-60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7b), 「제주도와 울릉도」, 『소학생』 51호, 18-19쪽. 『濟州島資料集』 9-10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7c), 『조선나비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이병철의 석주명 평전(『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아카데미서적, 1989. 및 『석주명 평전』, 그물코, 2002.)

에 실려 있음.

- 석주명(1947d), 『濟州島方言集』 濟州島叢書 第1輯, 서울신문사.
- 석주명(1947e), 『耽羅古史』, 『國學』 제3권, 25-28쪽, 36쪽. 『濟州島資料集』 172-176쪽 및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167-171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8a), 『朝鮮의 姿態』, 『濟州新報』 1948年 2月 6日紙 1面, 『濟州島資料集』 7-8쪽에 『한국의 자태』로 재수록.
- 석주명(1948b), 『濟州島의 象皮病』, 『朝鮮醫報』 vol. 2, no. 1, 38-39쪽. 『濟州島資料集』 213-214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8c), 『국학과 생물학』, 김정환 편 『현대문화독본』(1947년에 서울신문 학예란에 투고했던 과학수필 중 5편을 재편집 한 것).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183-186쪽에 재수록. 63-84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8d), 『濟州道廳論』, 『濟州新報』 1948年 10月 20日紙 2面, 『濟州島資料集』 197-198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9a),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1年間の 濟州島』, 『學風』 제2권 제1호, 100-101쪽.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179-181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9b),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둘째해의 濟州島』, 『學風』 제2권 제2호, 112-113쪽.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183-186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9c),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셋째해의 濟州島』, 『學風』 제2권 제3호, 116-117쪽.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187-190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9d), 『濟州島의 生命調査書 -濟州島 人口論-』, 濟州島叢書 第2輯, 서울신문사.
- 석주명(1949e),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조선교육』 제3권 제3호, 17-19쪽. 『濟州島資料集』 161-164쪽 및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157-161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9f), 『男女數의 支配線의 位置, 附 濟州道統計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계월보』 no.5, 1-3쪽. 『濟州島資料集』 209-212쪽에 재수록.
- 석주명(1949g), 『濟州島關係文獻集』, 濟州島叢書 第3輯, 서울신문사.
- 석주명(1949h), 『濟州名産 ‘不老茶’ 禮讚』, 不老茶製造本舖 서울出張所宣傳紙.
- 석주명(1950a), 『濟州島方言과 馬來語』, 『語文』 제2권, 1-4쪽. 『濟州島資料集』 157-160쪽 및 『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163-166쪽에 재수록.
- 석주명(1950b),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넷째해의 濟州島』, 『濟州新報』 부록 제1호(1950년 4월 5일), 4쪽.

- 석주명(1950c), 『濟州始祖 高·良·夫 三氏考』, 『週刊서울』 87호, 13쪽. 『濟州島 資料集』 168-171쪽에 증보하여 재수록.
- 석주명(1968), 『濟州島隨筆 -濟州의 自然과 人文-』, 濟州島叢書 第4, 寶晉齋.
- 석주명(1970), 『濟州島昆蟲相』, 濟州島叢書 第5輯, 寶晉齋.
- 석주명(1971), 『濟州島資料集』, 濟州島叢書 第6輯, 寶晉齋.
- 석주명(1972), 『韓國産蝶類의 研究』, 寶晉齋.
- 석주명(1973), 『韓國産蝶類分布圖』, 寶晉齋.
- 석주명(1992a),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신양사.
- 석주명(1992b), 『석주명의 과학나라』, 현암사.

2. 기타

- 강영봉(2002), 『제주어와 석주명』, 『탐라문화』 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강영봉(2008), 『석주명의 제주어와 몽골어』, 석주명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 <나비, 그리고 아름다운 비행-석주명선생과 제주와의 아름다운 만남>,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 2008. 12. 20.
- 김병택(2011), 『제주예술의 사회사』(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용식(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 문만용(1997), 『"조선적 생물학자" 石宙明의 나비 분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 석주명(1992), 『한국분위 세계박물학년표』, 신양사.
- 오성찬(2004),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푸른사상.
- 우종인(1938), 『남부조선채집기』, 『곤충계』 제6권 55호, 토요, 721-728쪽.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 330-337쪽에 재수록.
- 윤용택(2003), 『나비박사 석주명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며』, <제주문화포럼 소식지> 2003년 7월호.
- 윤용택(2007), 『석주명 선생, 업적 재조명 제주도가 앞장서야』, 제주대신문, 2007. 5. 16.
- 이병철(1985), 『석주명』, 동천사, 1985.
- 이병철(1989),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나비박사 석주명 평전』, 아카데미서적.
- 이병철(1997), 『나비박사 석주명의 생애와 학문』, 『과학사상』 제21호, 범양사.
- 이병철(2002), 『석주명 평전』, 그물코.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9), 『원색 제주도의 곤충』,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전경수(2000, 2003), 『석주명의 학문세계: 나비학과 에스페란토어, 그리고 제주학』,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고 석주명 선생 재조명> 2000제주전통문화 학술세미나자료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10. 7; <제주학의 선구자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의 삶>, 2003 석주명 기념비 제막식 세미나 (서귀포시), 2003. 6. 11.
-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봉행위원회(2011), ‘제주4.3사건희생자명단’ <제63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자료집, 2011. 4. 3.
- 최낙진(2007),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연구』 통권 제52호, 한국출판학회.
- 최낙진(2008),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출판학적 의미』, <나비, 그리고 아름다운 비행: 석주명 선생과 제주와의 아름다운 만남>, 석주명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한국방송공사(1980), <나비박사 석주명>(TV인물평전), KBS.
- 한국천문연구원(2004), 『한국천문대 만세력』, 명문당.
- 한림화(2000), 『국학자 석주명의 생애에 대한 고찰』,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고 석주명 선생 재조명> 2000제주전통문화 학술세미나자료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10. 7.
- 한창영(1969),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 <석주명 선생>』, 『제주도』 통권 41호, 제주도.
- 홍순만(2000), 『제주도학 연구와 석주명 선생의 공헌』,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고 석주명 선생 재조명> 2000제주전통문화 학술세미나자료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10. 7.

Abstract

Jeju Studies of Seok Joo-Myung

Yoon, Yong-Taek*

Seok Joo-myung(1908. 10. 17 - 1950. 10. 6) was the first man who became aware of the value of *Jejudaum*(Jejesque or Jeju style). About sixty years ago he perceived that the nature and culture of Jeju Island is very peculiar and important. He insisted that Korean intelligent people have to collect the materials of Jeju Island and formulate a system of Jeju studies. He studied the culture as well as the nature of Jeju Island for himself, and compiled materials into *Jejudochongseo*(a series of Jeju Island Studies by Seok).

The Jeju studies of Seok are significant as follows ; First, Seok laid the foundation for Jeju studies. *Jejudochongseo*(a series of Jeju Island Studies) is the fundamental materials for Jeju studies. The materials are the almost original forms of the nature environment and human society of Jeju Island. For that reason he became a precursor of Jeju studies. Secondly, the nature and culture of Jeju Island was studied as a whole by Korean scholar during the latter part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t that time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patronized scholar studied Jeju Island for the exploitation of its resources and the domination of Jeju society. But Seok investigated Jeju Island for the inquiring into the true state of Korea, and he regarded it as projecting Korean studies. Thirdly, Seok applied methodology of natural science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 other words he applied statistical and analytic method in butterfly-taxonomy to the dialect studies, the census, and bibliography. In that point, he was a precursor of the converging sciences. Fourthly, Seok occupied a position of integrating scholar owing to his Jeju studies. He was nothing but a noted entomologist before he had studied Jeju Island. But he became an integrating scholar who put together nature, humanity, and society since he had studied Jeju Island.

Seok has been dead for sixty years. There is a need today to consider Seok's Jeju studies from many angles in his whole studies. In the past sixty years many studies have changed their research methods, and Jeju studies have been rewarded with good fruits. We must estimate objectively Seok's academic achievements from many spheres.

Key Words

Seok Joo-Myung, Jeju Studies, *Jejudochongseo*(a series of Jeju Island Studies). Glocalist, Integrating Scholar, Converging Sciences

교신 : 윤용택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철학과
 (E-mail : sumaram@jejunu.ac.kr 전화 : 064-754-2753)

논문투고일 2011. 06. 01.

심사완료일 2011. 07. 27.

게재확정일 2011. 08. 17.